

‘우리의 정원,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내일’

‘전주정원산업박람회’ 5월 9~13일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서 정원문화 프로그램·전시·체험 등 진행

대한민국 정원산업 최대규모의 산업 전으로 국내외 회사가 참여하는 정원 산업박람회가 오는 5월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정원산업 육성과 시민들의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의 정원,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박람회는 △식물, 재료, 도구, 장비, 예술 등 다양한 소재들이 참가하는 ‘정원산업전’ △정원 작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조성’ △정원 해설부어 △뉴욕식물원 출신 가드너의 ‘정원조성 시연’ △우리집 정원 스토리 토크쇼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원문화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원백화점’을 콘셉트로 소품과 전시, 휴식·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포스터

놀이가 공존하는 박람회장이 조성된다. 또, 정원산업전에서 소비자와 생산

자의 직거래가 펼쳐지고, 전문·시민 작가정원에 정원해설사가 배치되는 등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 힐링, 교육을 함께 제공하게 된다.

특히 시는 박람회 방문객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스 배치를 중정형에서 일자형 구조로 변경하고 대형 파빌리온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더운 날씨와 넓은 공간에서 열리는 만큼 곳곳에 꽃잡캠프크닉과 산림치유존, 원예치유존 등 쉼터를 다양하게 마련해 관람객이 온종일 박람회장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B2B, B2C 거래를 위해 조정업체와 정원작가, 지자체 대상으로 산업전 현장을 투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사전에 규모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거래가 성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스텝프터 △정원소재 경매 △나만의 미니꽃다발 △정원사 인생컷 △천연비비 △허브차 시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전주 수목원 가는 정원길이 개통되어 올해는 전주수목원 탐방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전체 참여자의 50%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오는 4월부터 박람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전주시가 정원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정원산업체와 전주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원문화 확산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정원산업의 발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난 7일 전주시 팔복동 주민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가 진행된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함께 여는 팔복동의 큰 꿈

우범기 전주시장,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진행

추천대교 천변 다목적구장 설치 등 지역 현안 논의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7일 팔복동 주민센터 2층 대강당에서 팔복동 통장, 주민자치협의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들과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팔복동은 면적의 87%가 공업단지로 전주시의 대표 산업체들이 밀집해있고 탄소소재 국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 공업지역이다. 시는 팔복동에 대해 최근 도시재생사업과 다양한 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2025년 시정 목표인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의 비전을 제시하고, 5대 분야 18대 전략에 대한 시정 운영 방향도 함께 공유했다.

시정 운영 방향 공유 뒤, 우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팔복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팔복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덕촌길 및 팔복로 도로개설 공사 △신복로 인도 추가 개설 및 경관개선 △추천대교 천변 다목적구장 설치 등 주민들의 주요 현안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전주시는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전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전주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한지 우수성 홍보… 대양주 시장 개척 ‘앞장’

전주시의회 송영진 단장 등 전주시 대표단, 뉴질랜드서 한지 시장 개척 나서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방문한 전주시대표단(단장 송영진)이 재오클랜드한인회(회장 홍승필) 관계자들을 초청해 전주 한지의 우수성과 사업적 활용법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민과 함께 한지를 활용한 시장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재오클랜드한인회와 전주시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교민 및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지를 활용한 대양주 시장개척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의회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지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마오리족의 전통가옥 ‘탄가토크’를 비롯한 신화, 전통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한지 사용을 재오클랜드한인회를 통해 제안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행사 후 재오클랜드한인회는 지난 2년간 영화, 음식,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주시와 교민과의 활발한 교류 활성화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전주시대표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대표단은 쿠푸필름 스튜디오를 방문해 제2아시아 전주 스

튜디오 본격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논의하고, 6월 투자협약을 위해 전주 방문을 요청했다. 시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이어졌다.

전주시의회 송영진 예산결산위원장은 “한(韓)스타일 장르 중 하나인 한지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한지로드 개척의 첫 실험장을 대양주 시장에서 개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영화에 이어 한지가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 전주 문화의 봄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 요양병원 현장 행정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6일 효사랑가족요양병원과 우리들사랑요양병원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 행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직접 요양병원을

소방시설 관리 상태 점검 등 방문해 병원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비상 대피 경로 및 대피 방법을 점검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특히, 병원 내부의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을러 요양병원 관계자들에게 소방시설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소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요양병원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시설인 만큼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덕규 소방서장은 다음 날에도 중앙요양병원과 건강나라요양병원을 방문해 현장방문행정 및 안전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각시미용실 김미선 원장, ‘전주 함께라면’ 정기후원

30여년간 손님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 ‘밥 주는 미용실’로 유명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각시미용실 김미선 원장이 지난 연말부터 ‘전주 함께라면’에 정기 후원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미선 원장은 지난 12월 효자동 주민센터를 찾아 매달 라면 5박스를 ‘전주 함께라면’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기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고향사랑기부금 1호 사업인 ‘전주 함께라면’은 라면을 매개로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발적·장기 은둔형 고립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전주시 특화사업이다.

김미선 각시미용실 원장은 “고립과 은둔의 골데에 갇힌 이웃들이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드시고 세상에 한 걸음 내딛는 희망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



로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효자동장(최정숙)은 “항상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고 후원해주시는 김미선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후원 물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받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